

예배 전에

설명절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앞서가신 분이 남겨놓은 신앙적 유산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이드영상이 필요하신 가정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sanskc.com>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 송 28장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시편 128편

말 씬 복된 길을 걷는 가정

기 도 인도자

찬 송 559장

묵상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예배의 부름

새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신 한 해를 은혜로 채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기 도

하나님, 온 식구를 한 자리로 부르시고 함께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날 동안 저희 가정을 지켜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가정이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깨닫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안이 넘치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저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시편128편

-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 2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 3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 4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 5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여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 6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여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말 씬

“복된 길을 걷는 가정”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명절 아침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명절은 우리 마음에 설렘과 기대를 가져다주고, 오랜만에 만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기쁨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28편은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아름답게 노래함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줍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흔들리는 유행이 아니라, 변함없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삶을 꾸려 나갈 때, 주님께서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시인은 가족을 포도나무와 올리브 가지에 비유하면서, 아내와 자녀가 각각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새싹이 되어 가정의 기쁨이 된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결코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지 않고, 가정 전체에 화평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크고 작은 일에 기도로 나아가는 태도입니다.

둘째, 가족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과 인내로 양육하며,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면을 귀히 여기고 순종할 때, 서로 간에 존중과 신뢰가 쌓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인간관계에도 선한 영향을 주어,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깃들게 됩니다.

설 명절은 우리에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분명해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모습으로 가정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과 성공만을 좇는 세상 흐름 속에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평안과 보람이야말로 진정한 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권면합니다. 새로운 해를 열어 가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이 더욱 단단해지고, 마음을 모아 서로 기도하며 격려합시다.

시편 128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어지는 복을 날마다 체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축복의 선언을 가슴에 품고,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참된 복의 길을 걸어가는 2025년 설 명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후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가정 안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세요.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자녀는 순종과 존경으로 화답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복된 가정 되게 해 주세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모든 결정과 발걸음에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를 구하오니, 때마다 시마다 늘 동행해 주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각하기

다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순서지